

아이들 볼모 무책임 예산 심사 비난 봇물

광주 이어 전남도의회도 유치원 누리예산 전액 삭감 형평성 따지고 눈치보느라 결국 학부모에 피해 전가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원들의 아이들 볼모로 잡은 예산 심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도 의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는 커녕,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예산 편성으로 학부모 피해를 불러오는가 하면, 자신들이 삭감했던 예산을 부활시켰다가 비난 여론을 우려, 뒤늦게 삭감하려고 하는 등 부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형평성 따진다더니...=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래)는 전남 전남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83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조상래 위원장은 “원아 모집 시기인데 어느 쪽(유치원)은 예산이 있고 한 쪽은 전혀 없다면 원아가 오지 않으니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원회 행태는 사뭇 달랐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 전남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애초 상임위원회(기획사회위원회)가 삭감했던 ‘3~5세 전남지역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경비(950억원)’를 다시 부활시켜 본회의로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예결위가 어린이집 예산을 살리고 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같은 점을 문제 삼아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가 되살린 것이다.

올해 광주시 등의 전례를 감안하면 추경 예산안 편성 전까지 ‘뺄셈식’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의 경우 올해 시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 자치구를 통해 집행했고 시교육청은 2개월, 8개월, 2개월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지급해왔다. 도의회는 이같은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기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복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심사도 거부하더니=광주시의회도 비슷하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피해를 줄일 정책을 찾기는 커녕, ‘정부 압박용’, ‘한 쪽만 줄 수 없다’는 논리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문상필·김영남·유정심·김옥자·이은방 의원 등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예산 심사 결과대로라면 어린이집 자녀를 둔 부모들 뿐 아니라 광주지역 306개 유치원(공립 126·사립 180개)에 다니는 아이들 2만3907명을 둔 학부모들까지 교육비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한 때 일반 아이들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수업료를 편성하라며 시교육청을 압박,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받고도 삭감에 원칙 없는 예산 심의를 했다든 지적도 거세다.

한편, 전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전남지역민·학부모 등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독서 즐기는 60대의 ‘나쁜 손버릇’

인문학 서적만 골라 훑쳐 집엔 500권 넘는 책 쌓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채근담’ ‘서경과 서사’ ‘일한 한일 소사전’... 아내와 함께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배모(67)씨.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던 그는 몇 년 전부터 취미생활로 ‘독서’를 즐겼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배씨에게 고상한 취미인 독서와는 다른 나쁜 버릇이 생겼다. 이따금 중고서적 전문점에서 들러 마음에 드는 고전과 인문학 서적을 훑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힌 배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중고서적 전문점에서 진열돼 있던 1만3000원 상당의 고전 ‘채근담’을 훑치는 등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40권(20만6500원 상당)의 중고서적을 훑쳤다.

배씨가 경찰에서 밝힌 책을 훑친 이유는 단순히 ‘책이 읽고 싶어서’였다. 특히 훑친 책 중 30권이 넘는 책이 인문학 분야일 정도로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낱시 서적이었다.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배씨의 집을 조사한 경찰은 “배씨 집 거실에 500여권이 넘는 책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은 15일 배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북구-담양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갈등 광주시-북구 신경전으로 비화

북구 “광주서 모두 처리 약속” 시 “그런적 없다...반입량 제한”

광주시 북구와 담양군 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갈등’<광주일보 15일자 6면>이 광주시와 북구의 신경전으로 접화됐다.

앞서 북구는 광주시가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의 반입량을 제한하자 추가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양에 있는 민간업체에 맡겨오다가 담양 주민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광주시는 15일 내년 6월 광주시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시공이 완료되더라도 정량(1일 450t)을 넘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구가 밝힌 “광주시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광주에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담양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지 않을 테니 참아달라”는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북구는 전남 담양 주민들이 정장을 향한 방문하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을 설득,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가 몇 차례 정량반입 제한 해제에 대해 문의 해왔지만 정량반입을 해제하겠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정량반입을 고수하는 이유는 공공음식물처리시설에서 또 다시 악취 민원

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앞서 광주시는 유독사업소에서 악취방지기준법상 기준치인 ‘희석배수 500배’를 6배 이상 초과한 ‘희석배수 3000배’의 악취가 발생, 부실공사는란이 일자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반입량을 제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뒤에도 유독사업소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반면 북구는 담양 주민들과 약속한 내년 6월까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북구는 “당장 타지역 업체의 경우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광주 인근 민간업체들도 조만간 처리비용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자치구로서는 추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광주시가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15일 광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을 일요일에 추가 가동하면 5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생각은 다르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를 저감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6일 광주시에서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정량반입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말 따뜻한 동심 15일 광주시 동구 충창로 우체국 앞을 지나던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흥서 ‘가짜 한센인 환자’ 무더기 적발

전 자치회장 등 19명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 일부 환자들이 서류를 조작, 한센인으로 위장해 국가의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소록도 전 한센인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서류 조작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은 금품을 받고 병력(病歷) 관련 서류를 조작해준 혐의(사문서 위조·사기 등)로 전 한센인 자치회장 김모(65)씨 등 자치회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병력지 위조를 부탁한 이모(70)씨 등 환자 1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것처럼 병력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록도병원에 입원해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치료비·주거비·식비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국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하위 병력지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환자 3명에게 2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환자 11명은 자치회 임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센인 자치회가 사실상 입·퇴원을 결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담양서 동반자살 기도 3명

펜션주인이 발견 병원 이송

담양에서 동반자살을 기도한 10~20대 남녀 3명이 펜션 주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오후 2시11분께 담양군 용면의 한 펜션에서 서모(29)씨 등 투숙객 3명

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서씨 등을 광주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씨 등은 발견 당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일행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펜션 안에서는 유서와 타다 남은 반개단이 발견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훙친 카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40여일만에 사용 ‘탈미’

○...훙친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40여일 넘게 고민하던 50대 남성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지를 확인하다가 경찰에 달미.

○...1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최모(59)씨는 지난 10월 5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한 술집에서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이모(여·40)씨의

지갑을 훑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최근 아는 카센터에서 ‘집사카드’ 한 번 사용해달라”고 1000원 결제를 시도했지만 카드가 정지돼 사용하지 못하고 불참했다”며 “최씨가 훙친 현금은 사용하고, 카드 사용 여부를 놓고 45일 넘게 고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7층) 건물 (사우나 건물)</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 용 7억)</p> <p>매가 15억5천</p> <p>010-7384-7800</p>	<p>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을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매가 6억 5천만</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010-6670-98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 (용5천(보)원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0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역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역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역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⑤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⑥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층(40평) (보8백,월9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⑦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⑧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⑨ 북구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7층 상가건물 (토96평,건584평) (보 1억5천,월1,000만) → 매가 15억5천</p>	<p>법 률 경 매 <특수물건 추천></p> <p>1. 북구 용봉동 (토 500평,건 900평) 삼성전자 정문 앞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향후 60억 가치 있음 (분할등기 가능) ☆ 분할 등기시 대출 25억 가능!!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p> <p>3. 북구 두암동 (토 44평,건 166평) ※ 두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1층(상가)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만</p> <p>4. 서구 마북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역의 남동측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p> <p>(이외 다수 물건있음)</p> <p>010-6834-4800 / 010-6832-9700</p>
---	--	--	--